

2023. 3. 3.(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주한외국대사 초청 춘계인사회 총괄)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여의도 금융중심지 영어친화환경 조성)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2133-5260
국제정책팀장	박경민	2133-5262
담 당 자	나소정	2133-5265
금융투자과장	김국진	2133-8547
금융투자정책팀장	정경란	2133-5309
투자여건개선팀장	문철오	2133-5310
담 당 자	김지희	2133-5311
담 당 자	김남지	2133-5244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오세훈 시장, 주한외국대사들에게 '서울매력'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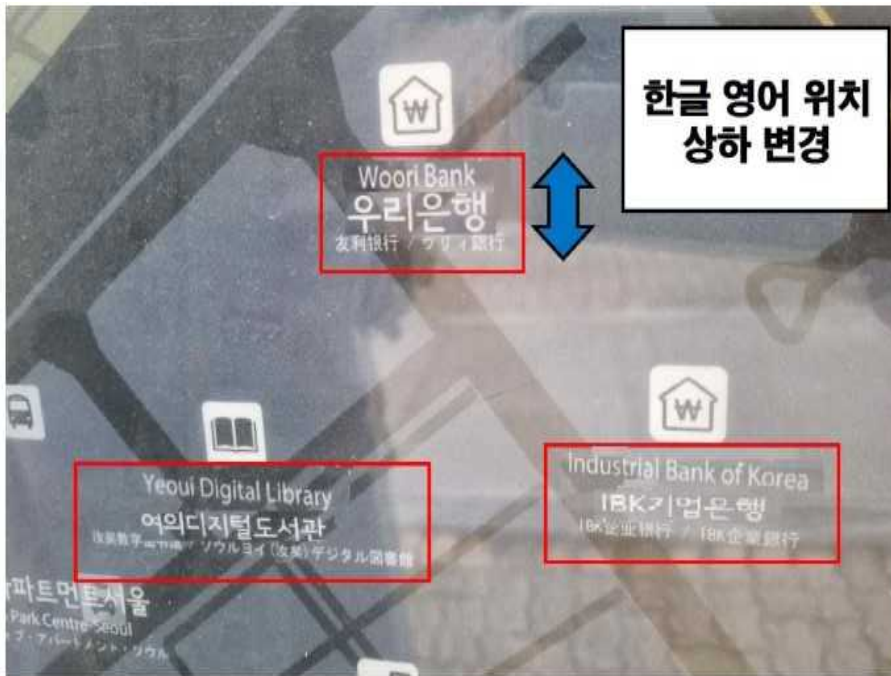
- 각국을 대표하는 99개국 주한외국대사 등 150여명 초청, 춘계인사회 개최
-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서울의 비전 발표
- 특히, 찾아오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한 영어친화도시 추진 밝혀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금) 16시 세빛섬에서 99개국 주한외국대사 등 각국을 대표하는 주한외교사절단 춘계인사회를 개최한다.
- 서울시는 99개 대사관에서 참석하는 만큼 이번 춘계인사회를 통해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 다양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과 한국(서울)의 더욱 굳건한 동행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한외교사절단 1:1 환영을 시작으로,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춘계인사회가 막을 연다.
- 이날 춘계인사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영사와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서울의 미래비전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 서울시는 2023년을 ‘매력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설정하고 서울의 매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의 뷰티, 패션, 디자인 등 라이프스타일의 글로벌 선도를 위한 정책부터 영어친화도시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한강 일대 수변 도시경관 혁신정책, 하늘길-물길-지하길로 구성된 미래 스마트 교통도시 정책, 수변감성도시 및 메타버스 서울 정책까지 서울의 매력을 높일 다양한 미래정책들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진다.
-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22.2월 투자유치 전문기관 ‘서울투자청’을 출범하며 글로벌기업과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서울투자청’을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정주 지원까지 투자유치 정책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영어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수요 및 여론 분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인이 서울에서 불편함 없이 비즈니스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교육·부동산·행정 등으로 점차 종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여의도 내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이용하는 ▲영어친화 키즈카페 조성, 영어 독서 커뮤니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영어친화 도서관 신설, 외국인의 편의를 제고할 여의도 내 ▲13개 영어 우선표기 표지판 설치 등이 시범사업의 주요 골자다.

〈표지판 영어 우선표기(안)〉



-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리핑 말미에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있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서울스마트시티 어워드’를 홍보하며 최첨단 스마트도시로의 도약을 향한 서울의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이날 춘계인사회에 함께 한 주한외국대사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리핑 이후에는 외교부 장관 축사와 주한외교사절단을 대표하여 주한가봉대사의 건배사가 진행된다.
 - 주한가봉대사는 2011년 11월 임명되어 이날 춘계인사회에 참석한 대사들 중 가장 주재기간이 길어 건배사를 한다.

- 외교부 장관 축사와 주한가봉대사의 건배사 이후에는 환담과 네트워킹이 이어진다. 이 날 환담과 네트워킹에는 더욱 폭넓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서울산업진흥원(Seoul Business Agency), 서울투자청(Invest Seoul), 서울주택도시공사(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 서울관광재단(Seoul Tourism Organization) 대표들과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도 함께 하여 각 기관별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주한외국대사들의 협조와 관심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 환담과 네트워킹 이후에는 더욱 밀도있는 친교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한강 르네상스호에 다같이 탑승하여 한강 일대 수변 도시경관을 매력적으로 바꾸어 나갈 현장을 공유하는 일정도 진행한다.
 - 특히 석양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한강을 함께 바라보며 전세계가 찾아오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 서울의 핵심 랜드마크가 될 한강의 매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